

【주제발표 3】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박 성 용 |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줄다리기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범인류적인 문화현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의례로 주로 농경 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할 때, 혹은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해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전통 줄다리기는 기후나 환경에 따른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수성과 독자성, 창조성이 존재하여 아시아의 공동의 무형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승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의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줄다리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개략적인 연구가 많아 지역 간의 관련성을 짚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당진시와 협력하여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3개월간에 걸쳐서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줄다리기 현황 조사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참가하였으며 농경의례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줄다리기에 대한 조사내용들은 2013년 4월 당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이때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보호 현황에 대한 발표도 추가되었다.

2013 년도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4 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상기 국가는 심포지엄 이후에 개최된 비공식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국가에서 전승되고 있으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연행되고 있는 전통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의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4 월에 가졌던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대표들과 함께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정부 간 회의를 10 월과 12 월 2 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정부 간 회의에는 각국의 무형유산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주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충력을 기울였다. 한국을 비롯한 4 개 국가는 처음으로 작성하는 공동등재 신청서였기에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다.

작성된 등재 신청서와 사진, 영상 등 부속 첨부물들은 파리 현지 시간 2014 년 3 월 31 일 기한에 맞추어 협약 사무국에 제출되었으며, 사무국으로부터 2014 년 11 월에 신청서 보완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 국은 다시 협력하여 2015 년 2 월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현재 유네스코 협약 평가기구에 의해 공동등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기구의 최종 평가는 4 월에서 6 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무국은 정부간위원회 4 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위원회 위원국에 전달하고 당사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줄다리기 공동등재 여부는 11 월 30 일부터 12 월 4 일까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개최될 제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위에 기술한 아시아의 민속 줄다리기를 둘러싼 그간의 국제 협력 노력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2.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사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당진시는 아시아 지역의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

고 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줄다리기 전통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현황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의 줄다리기 전통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센터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각국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자국의 전통 줄다리기에 관한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각 기관은 센터에서 작성한 질문지에 따른 응답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현황조사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1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줄다리기 전통을 현지 조사팀을 파견하여 촬영, 기록, 연구하도록 하였다.

해당 줄다리기의 개요, 특징 및 전승 현황, 연희 과정 및 도구의 제작, 관련 의례 및 행사, 전승자 및 관련 단체, 각종 보호 조치 등 국가별 현황에 관한 질문서 작성, 조사함으로써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전승 및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지조사팀은 각 줄다리기 전통을 계승하는 실연자와 전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생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센터는 참가국 및 관계기관과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 베트남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팀은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 소속 연구원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현지조사팀은 박닌 성 흐우 째 마을의 줄다리기 축제, 빈푹 성 락선 줄다리기 축제, 라오까이 성 룡푹 줄다리기 축제, 흐엉 깐 마을의 줄다리기 축제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사업 기간 중 줄다리기 축제가 연행된 흐엉 깐 마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줄다리기 축제를 조사, 기록하였다.

2013년도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는 2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사흘 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현지조사팀은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줄다리기 행사 참관, 관계자 인터뷰,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관련 문헌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1차 현지조사를 마친 뒤 수집한 정보를 센터가 제공한 질문지에 대입하는 방

식으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공동체의 인증과 조사 내용 보충을 위해 3월 둘째 주에 호영 깐 마을을 2차 방문하였다.

2차 현지조사에서는 줄다리기 선수, 마을 공동체 간부 및 마을 원로 등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1차 방문 시 행사 참관만을 통해서 얻 수 없었던 줄다리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팀은 3월 셋째 주에 두 차례의 현지방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와의 피드백을 통한 보고서 내용 수정 및 보완을 거쳐 4월 첫째 주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였다.

2) 필리핀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팀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NCCA)를 비롯하여 필리핀대학교, 필리핀문화원 등 다양한 소속의 직원으로 되었다.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는 하반기에 열리는 후오와 추수의례의 일환으로 연행되기 때문에 본 사업 기간 내에 실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필리핀 현지조사팀은 후오와 추수의례로 거행되는 전통 줄다리기인 ‘푸눅’의례를 중점 조사하기로 하고, 2013년 3월에 해당 지역을 1차 방문하여 푸눅 연행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농경의례로서 연행되는 줄다리기인 푸눅은 본 현황조사 사업이전에는 사진기록 및 신문기사가 남아있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심층적인 조사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조사팀이 1차 현지조사 이전에 수집할 수 있었던 푸눅 관련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조사팀은 2013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이루어진 이푸가오주 1차 현지조사시 푸눅과 후오와를 연행하는 바랑가이 지역 3곳인 바랑가이 하파오 프로퍼, 바랑가이 반가안, 바랑가이 농구루난에 거주하는 푸눅 연행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팀은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 11일에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필리핀 현지조사팀은 추수의례 일정과 연계하여 이푸가오주를 재방문하여 푸눅 의례를 참관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센터에 제출하였다.

3)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센터는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지조사는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산하 대표 연구교육기관인 왕립예술대학교의 봉 소바트 총장을 수장으로 왕립예술대학교 연구자 및 문화예술부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는 4월 중순 캄보디아의 전통 설 명절과 출롱 췌(chlong chet)이라고 부르는 시농(始農) 축제 기간에 연행되는데, 현지조사팀은 본 사업 기간 중 설 명절 축제의 일환으로 연행되는 전통 줄다리기를 참관할 수 있었다. 대부분 모든 지역의 줄다리기 행사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 동시에 연행되는 점과 일부 현지조사팀원이 당진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줄다리기 행사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엠립 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조사는 서면 및 유선 인터뷰, 기존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팀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문헌자료 조사를 토대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센터와의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2013년 5월 24일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상기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 조사된 최종 결과물들을 토대로 2013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남 당진에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5호 기지시줄다리기의 공개행사의 일환인 ‘2013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참가자들은 심포지엄과 함께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당진선언

심포지엄에 앞서 당진시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당진선언’을 선포하였

다. 당진선언은 2013년 4월 11일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 국내 줄다리기 보존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선언문을 통하여,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는 공동체 간 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 활동을 적극 증진할 것,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공동체 간 연맹 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당진시는 국경을 초월하여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공동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전야 행사로 개최된 당진선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을 모시고 엄숙히 약속하였다.

2)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의 학술 관계자,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 줄다리기 보존회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 줄다리기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국 전통 줄다리기의 전승 현황에 대한 주제로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하였다.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동등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12일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이란 주제로 하루 종일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줄다리기’라고 하는 소주제로 제 1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박성용 정책사업본부장이 ‘2003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의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박상미 교수가 ‘국경을 넘는 공유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정연학 학예연구관이 ‘동아시아 공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에 대하여 발표가 이어졌다.

제 2부에서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 응엔 티 투하 연구원이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축제, 흥영 간 줄다리기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사례발표를 하였으며(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응엔 김 중 무형유산과장 대독), 계속해서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시운 소페아리트 강사의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필리핀대학교 노마 레

스피시오 교수의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동경문화재연구소 호시노 히로시 명예연구원의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 현황’,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한양명 교수의 ‘한국의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그 의미’ 등 각국의 줄다리기 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이삼열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응옌 킴 중 무형유산과장,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치 로타 교무차장,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세실리아 피카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동경문화재연구소 아마이시 미기와 연구원, 중앙대학교 임장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크게 ‘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줄다리기의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성’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전통 줄다리기는 농경의례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연행되는 공동의 유산이며 문화나 기후, 환경에 따라 공통성과 독자성, 창조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심포지엄은 그 다양성과 통유성을 살펴보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동아시아 공유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의 국가별 분포 및 전승 현황 사례를 공유하였다.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은 공동의 과제를 위한 문화 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통 줄다리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를 위한 정부 간 회의 사전 정보 세션

심포지엄 다음날인 2013년 4월 13일에 동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베트남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보 세션 형식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문화재청은 먼저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였고, 줄다리기 공동등재 국가 간 연락회의를 구성하고 포컬 포인트를 선정하였으며, 신청서 작성과 사진 및 동영상 등의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4.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정부 간 회의

한국의 문화재청은 일본을 비롯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국과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등재 참가 의사를 밝힌 동남아시아 3국과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간 회의를 진행하여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제 1차 회의는 2013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제 2차 회의는 2013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국가 당 2명씩 각국 정부 대표자 8명, 문화재청 및 아태무형유산센터 관계자 10여명, 국내 무형유산 및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이 참가하였다.

1) 제 1차 정부 간 회의

2013년 10월에 문화재청의 주최 하에 열린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제 1차 정부 간 회의는 각 정부 간의 의견 조율 및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다. 센터는 공동등재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공동등재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일정을 제시하였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공동 등재 신청서의 초안 작성을 위하여 해당 유산의 기본정보 및 정의를 소개하고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화를 촉진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효율적인 공동등재 신청서를 위한 작성 전략을 통하여 종목을 공동등재 하는 의미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첫째로 정부 간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공동등재 추진 배경 및 경과보고, 공동등재 신청절차 및 향후 일정 검토, 정부 간 회의 구성 및 역할 분담 협의), 둘째는 국가별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발표(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셋째는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해당 유산의 기본 정보, 해당 유산의 정의 및 소개, 인식 제고 및 대화 촉진, 보호 조치, 공동체 참여 및 동의, 기타 사항) 등의 논의와 작업을 처리하였다.

제 1차 정부 간 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공유 무형문화유산인 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각국 현황을 확인하고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의 전통 줄다리기가

자국의 국가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국의 해당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차원에서 공동등재를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국은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종목의 공식명칭을 ‘전통적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로 동의하여 줄다리기가 단순 연행이 아닌 의례이자 놀이임을 부각하여 공동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각국 참가자들은 공동등재 신청서 초안을 각국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2) 제 2차 정부 간 회의

1차 정부 간 회의에 이어 두 달 후인 2013년 12월에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제 2차 정부 간 회의가 열렸다. 제 1차 정부 간 회의 공동등재 신청서 초안 이후, 국가별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바, 수정안에 대한 검토 및 최종안 확정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별 국내 승인 절차 추진,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 제출 등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대내외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하였다. 제 2차 정부 간 회의를 통하여 유네스코 목록 등재에 대한 증가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부응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국가별 등재신청 건수 제한 요청에 대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첫째로 공동등재 신청서 국가별 수정안 검토(제 1차 정부간회의 때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국가별로 검토 수정한 내용 발표, 센터에서 신청서 수정 양식 기 배포), 둘째는 공동등재 관련 국내외 절차 점검(국가별 등재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점검 및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 등재 신청서 제출 일정 확인, 국가별 등재 신청서 승인 절차 보고 요청), 셋째는 등재 신청 관련 영상 및 사진 자료 선정(문화재연구소가 감수하고 외부 전문 업체에서 작업 중인 10분 이내 영상물 검토 및 10장의 사진 자료 선정,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2차 회의에서 각국은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종목의 공식명칭을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Tugging Rituals and Game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담론 등을 통해 최근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통(Tradi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전통적(Traditional)’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은 2차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공동등재 신청서 2차 수정안을 작성하고 최종본을 2014년 1월 2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등재 신청서 서명 등 모

든 등재 신청 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등재 신청용 10 분짜리 동영상에 대한 시사회도 개최되었다.

2 차례에 걸쳐 진행된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 개국 정부 간 회의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연대를 통하여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크나큰 의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개국이 작성한 공동등재 신청서는 한국이 대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사무국에 2014 년 3 월 31 일(파리 현지 시각)에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

이후 지난 2014 년 11 월에 협약 사무국은 우리 문화재청에 신청서 자료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그 해 12 월 중에 미비 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사무국으로부터 글자 수 등 제한된 지면에 4 개 국가의 내용을 기술함에 따라 부족한 설명을 이유로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받아 다시 4 개국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난 2 월에 보충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공동등재와 향후 과제

줄다리기 공동등재와 관련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국가 간 경쟁으로 신청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짐에 따라, 지난 제 6 차 회의(2011)에서 등재 심사 총량을 연간 60 건으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 8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심사 총량이 연간 50 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또한 심사의 우선순위를 첫째로 등재 유산 미 보유국 제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둘째로 공동등재 신청서, 셋째로 등재유산이 적은 당사국 제출 신청서로 결정하였다.

지난 2014 년도 3 월에 신청한 줄다리기에 대한 심사는 공동등재 종목 우선 심사 원칙에 따라 2015 년도 심사 대상 26 번째로 순서를 차지하였다(참고로 같은 시기에 한국 단독으로 신청한 ‘제주도 해녀문화’는 그 순위가 59 번으로 2016 년도 심사 대상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협약 대표목록에 대한 심사는 2008 년에 협약 운영지침이 제 3 차 총회에서 채택 된 이래 협약 선거 지역 구분에 따른 6 개 그룹의 정부간위원국 대표 2 개국씩 12 개

국가로 구성된 ‘보조기구’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개 그룹에서 선출된 전문가 6명과 비정부기구 대표 6명씩 12명으로 구성된 ‘평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심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기구의 심사결과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나미비아에서 열리는 제 9차 정부간위원회 4주 전에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또한 심사결과는 동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여러 무형유산 관련 전문기관들은 성공적인 등재 결정을 염원하면서 몇 가지 기념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은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등재 결정이 날 것을 기념하여 4개국의 민속 줄다리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와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재단과 당진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의 협력 하에 올 연말에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에 대한 영문 및 국문 도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다리기’라고 하는 무형유산이 형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대의적 명분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개국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대표목록 공동등재 신청 작업은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